“종단 버팀목 법융 대종사, 속환사바하소서”

2월 18일, 원로회의장 영결다비
수행 행정 교육 두루 아우른 삶
“사라짐 아닌 본래 자리로 회향”
부산 미타선원서 49재 봉행해

하동 쌍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원로의원 지하당 법융 대종사의 영결식이 2월 18일 쌍계사 팔영루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조계종 원로의원 지하당 법융 대종사의 영결식이 2월 18일 쌍계사 팔영루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 금정총림 방장 정여 스님을 비롯해 명예원로의원 일응 스님과 법타 스님, 원로의원 도후·보선·철웅·세민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호계원장 정묵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종단 교역직 스님들도 참석해 법융 대종사의 수행과 원력을 기리며 추모했다.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은 영결사에서 “법융 대종사는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출가해 수행과 행정, 교육을 두루 아우르며 종단이 나아갈 길을 몸소 보여 준 조계종의 버팀목”이라며 “대종사가 없는 사바세계는 허전하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사부대중의 길잡이로 남아 있다”고 추모했다.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보선 대종사의 대독을 통해 법어를 전했다. 성파 스님은 생사의 무상함을 시구로 설하며 “어제는 분명히 함께 있었으되 오늘은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삶의 이치”라면서도, 이는 사라짐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감임을 일깨웠다. 이어 “조계의 맑은 물로 달인 조주청다를 올리오니, 무생락과 삼매락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에서 “어떤 소임을 맡아도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온 선지식”이라고 추모했다. 진우 스님은 “법융 대종사는 군승과 여러 사찰의 주지,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등 종단의 다양한 소임을 맡아 비구 비구니와 재가불자 모두에게 지혜의 등불이 돼 왔다”며 “번뇌 속에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준 자비와 비심의 수행자였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조사에서 “법융 대종사는 종단의 깊은 법등이자 백년대계를 염려하던 큰 어른이었다”며 “중앙종회의원과 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소임을 통해 종단 안정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추모했다. 이어 “모든 소임을 내려놓은 뒤에도 참선 정진을 멈추지 않은 수행자의 모습은 후학들에게 용맹정진의 경책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영결식에 이어 봉행된 다비의식은 거화의식으로 시작됐다. 사부대중은 다비장을 돌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고, 불길 속에서 법융 대종사의 법구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로 마지막 예를 올렸다. 다비는 염불 소리 속에 고요히 회향됐으며, 사부대중은 대종사의 속환사바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한편 법융 대종사의 49재는 부산 미타선원에서 봉행된다. 초재는 2월 20일, 2재는 2월 27일, 3재는 3월 6일, 4재는 3월 13일, 5재는 3월 20일, 6재는 3월 26일, 막재는 4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마하사 사찰림 수용 ‘절차 위법’ 판결 확정

2월 12일 상고 기각…수용 절차 효력 상실


대법원이 부산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마하사 전경.

대법원이 부산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마하사 전경.

대법원이 부산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2월 1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마하사 사찰림 수용 절차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17일, 마하사가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하면서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종 결론이 됐다.

법원은 문제의 토지가 1988년 전통사찰로 지정된 이후, 1989년 경내지 확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할 관청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전통사찰보존지로서의 법적 지위는 연속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부산시의 행정 처리 과정도 함께 판단했다. 부산시는 1996년 해당 토지를 전통사찰 경내지로 인정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했고,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사찰보존지 수용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제 수용재결 과정에서는 관련 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수용이나 사용, 제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한 이번 수용재결이 관련 법령에 반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실시계획 고시가 유효하더라도,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면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됐다.

마하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와 사찰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마하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전통사찰보존지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림사, 신문지 봉투로 설 풍경 바꾸다

3천여 개 제작해 가게에 전달
장 보는 과정서 비닐 사용 감소



부산 지역 제1호 녹색사찰 도림사(주지 정찬 스님)가 설 명절을 맞아 신문지를 재활용한 봉투 3000여 개를 제작해 동래시장 내 과일 가게와 참기름 가게에 전달했다.〈사진〉 도림사가 전달한 봉투는 명절 기간 실제 장보기 현장에서 사용되며 비닐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림사가 제공한 신문지 봉투는 장바구니를 지참한 손님에게 과일이나 참기름을 담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봉투를 장바구니 안에 넣어 전달하면 별도의 비닐 포장이 필요 없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봉투 활용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지 봉투 제작은 별도의 재료나 비용 없이 간단한 접기 방식으로 가능하다. 도림사에서는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제작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림사 스님들이 직접 접는 방법을 전수해 왔다. 설 명절 이후 정초기도 입재가 진행된 2월 21일에도 신도들이 다시 모여 신문지 봉투를 접으며 실천을 이어 갔다.

주지 정찬 스님은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자 해사 생도 임관 축하 법회

2월 25일, 16명 졸업 · 임관



해군사관학교 제80기 불자 생도들의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하는 법회가 2월 25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법당과 해군회관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16명의 불자 사관생도를 비롯해 스님과 군 관계자, 불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육군 제2작전 사령부 현조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장교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생도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유혜성·이윤정 생도, 진각종 통리원장상은 박준영·김동률 생도, 진해불교사암연합회 회장상은 김상훈·김영준 생도가 수상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개금복지관, ‘ESG센터 부산진구’ 개소

2월 19일 개소식



사단법인 안국 개금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수불 스님, 이하 개금복지관)은 2월 19일 복지관에서 부산시 ‘15분 도시 부산’ 시책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 ESG센터 부산진구’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

‘우리동네 ESG센터 부산진구’는 총사업비 3억3000만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노인 일자리 220개를 창출해 폐플라스틱 수거 및 업사이클링 등 자원순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수불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일은 죽어 가는 생명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고운사 경전교육 연수 안내
강성 큰스님 대승기신론 마지막 강의
안거를 마치고, 믿음의 근원을 다시 밝히는 귀한 자리. 대승불교 사상의 정수 (대승기신론)을 일심(一心)·이문(二門)·삼대(三大)·사신(四信)·오행(五行)의 구조로 체계적으로 회향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부터 오랜시간 함께해온 도반들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서
‘믿음의 근본’과 ‘보리심의 일념’을 되새기며 깊고 원만한 법연(法緣)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70(2026)년 3월 9일(월요일)~3월 12일(목요일) 오후 1시~5시 20분
- 내 용 : 1강연당 4시간, 4강 진행
- 장 소 : 고운사 화엄전(템플관 1층 강당)
- 모집인원 : 50명(수강료 선입금자 선착순)
- 수 강 료 : 15만원 ※교재비 8만원 별도
(계좌번호 : 농협 729-01-127310 고운사)
- 전화접수 : 010-516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 운 합장